

# 전남도 “마늘 수급안정 재고 처리, 추가 시장격리 필요해”

## 공급과잉 우려...정부에 추가대책 건의

전남도는 2020년산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에 재고물량 신속 처리와 추가 시장격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9월 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전남도의 건의로 509ha를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인해 작황이 좋아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 2019년산 재고량까지 많은

상황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부진까지 겹쳐 정부 추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확기인 5월부터 6월 이전 정부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9년산 재고마늘 폐기·가공 등 신속한 처리와 올해산 마늘 추가 시장격리, 정부 비축수매 4월중 발표 등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마늘 가격도 지난해 비해 많이 하락했다”며 “전남도는 올해산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간마늘 거래 가격은 kg당 38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0%, 평년 대비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은 기자

## 광주시, 특수고용직 등 생계비 지원 신청 접수 오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실직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5월 22까지이고,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기 신청 중인 가계간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별로 자격 조건과 입증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신청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자이다.

광주시는 이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택배기사, 쿠팡서비스기사는 협업을 고려해 제외했다.

실직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중 광주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3일 이후 실직한 자이다. 또한 실직일 전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은 근로를 했어야 하고, 실직기간은 월 5일 이상이다.

무급휴직근로자는 2월3일 현재 광주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청년수당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은 자는 이번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생계비는 광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구, 코로나19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광주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된 취약계층의 탈수급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기업매출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

최근 관내 자활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매출이 급감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으며 이에 동구는 자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3개월간 인건비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서구,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

광주 서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신청 구비서류 발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 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신청은 지난 2월 1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하루 400여명이 접수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에 서구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가 위치한 KDB생명보험 빌딩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설치했다.

## 남구, 사직동 뉴딜사업 내 노후주택 100가구 정비

광주 남구는 사직동 뉴딜사업 구역 내 외부경관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 구역 내 주택 100가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남구는 9월 “사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의 외부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오는 29일까지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있는 사직동 관내 1통에서 4통 지역 내 포함된 노후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내(자부담 10%) 범위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다가구 거주자의 경우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대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된다.

## 북구, 정책 투명성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광주 북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북구는 정책실명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사업 중 주민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신청실명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개 요청이 가능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는 △층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다수 구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 △개정 사항 등이다.

## 광산구, 개별공시지가(안) 공개 의견접수

광주 광산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 148,737필지 개별공시지가(안)를 공개하고, 4/14~5/4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안)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4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부동산지적과나 구 홈페이지,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임형택 기자

## 전남 동부권 5개 기관, ‘코로나19’ 극복 헌혈 동참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등 동부권 5개 기관이 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혈액 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해마다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와 함께 개학연기 등이 맞물리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를 비롯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해양수산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순천 팔마체육관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실시, 민간기업과 도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남 동부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하루빨리 혈액 수급이 안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수당 월 1만~3만원 인상

광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수당 인상은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3건이 지난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추진됐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전몰군경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과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

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4월부터 각각 월 1만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7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된다.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7200여 명에게 연간 9억여 원이 인상된 약 42억의 수당이 지급돼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분 근무 시간엔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유익한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분위
2009	1.11배	1.70배	2.11배	2.70배	3.30배	5.30배
2016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183,961원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